

일 지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석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최상순 · 허혜경 · 박소미

Abstract

The Analysis of Activities of Volunteers for Hospice Care

Sang Soon Choi, R.N., Ph.D., Hye Kyoung Hur, R.N., Ph.D. and
So Mi Park, R.N., Ph.D.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spice volunteers and care-takers and analyze activities of volunteers.

Methods: Firs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spice volunteers and care-takers, 87 records that registered in for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in Wonju C.C.C from 1997 to 2000 were analyzed. Second, to analyze activities of volunteers, 30 voluntee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developed by research team.

Results: 1) Hospice volunteers were mostly female (93.1%) with an average age of 45 years. 32.4% of persons who completed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has been participated hospice care continuously. 2) The care-takers average age was 50 years and mostly with cancer. The majority (13.6%) of cancers was lung cancer. 3) The mean frequency for visiting was 10 and the mean duration for offering hospice care was 49.4 days. 4) The highest score of activity was spiritual area (mean=1.97) and next activity was emotional area (mean=1.49).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have an important basic data to develop program for hospice volunteers in W city.

Key Words: Hospice volunteer, Hospice care activity

서 론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지만 동시에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환자의 수도 또한 증가시켰다. 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사망 원인의 2위로

순환기계 질환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1]. 이처럼 죽음을 앞둔 환자는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갈등과 영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암환자를 포함한 말기환자를 돌봄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돌보는 개념보다는 신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영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3].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

량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 돌봄이다[4]. 다시 말하면 호스피스란 특별한 장소나 건물의 개념이 아닌 돌봄을 중심으로 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팀으로 돌보는 전문적인 활동이다[5]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팀은 약 60개이며, 대부분이 종교적 배경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전문분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6], 아직까지 인력, 시설, 설비, 체계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호스피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의료인, 간호학생, 자원봉사자, 말기 암환자 및 가족 등 다양했으며, 연구개념은 호스피스 프로그램 활동,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임종환자의 상황불안,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태도 및 견해, 운영사례, 호스피스 수가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8]. 그러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행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에서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환자들을 만나 시행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호스피스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1997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6기에 걸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87명의 기록지와 2000

년 6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설문지에 응한 30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평가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1차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대학선교회 C.C.C 원주지부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수료한 후 자원봉사 유경험자의 기록지 총 87개 전수를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35명에게 설문지를 중 불충분한 자료 5부를 제외한 30부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문헌고찰, 임상경험등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신체적 돌봄 27문항, 정서적 돌봄 13문항, 사회적 돌봄 11문항, 영적 돌봄 13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는 3명의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었다.

호스피스 간호활동은 '매우 자주한다' 4점, '자주한다' 3점, '가끔한다' 2점, '아주 가끔한다' 1점, '전혀하지 않는다' 0점으로 계산되었다.

3. 통계 분석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각 영역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 서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결과는 기록지 분석(chart review)과 설문조사(questionnaire)를 통해 나온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기록지 분석결과

1)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자 현황

W지역에서 1997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6기에 걸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수는 총 146명이었으며, 이 중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총 108명으로 74.0%를 차지하였다. 교육자중 결단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는 80.5%로 1999년에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였다.

2) 자원봉사 유경험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를 결단한 사람 108명 중 실제 봉사경험이 있는 사람은 87명이

Table 1. 자원봉사자 교육시기에 따른 교육수료자 및 결단자 수

| 교육시기 | 수료자 수 (명) | 결단자 수 (명) | 결단자 비율 (%) |
|--------------|--------------|--------------|---------------|
| 1997. 3 (1기) | 18 | 12 | 66.7 |
| 1997. 8 (2기) | 13 | 9 | 69.2 |
| 1998. 2 (3기) | 18 | 14 | 77.7 |
| 1998. 8 (4기) | 31 | 22 | 71.0 |
| 1999. 2 (5기) | 36 | 29 | 80.5 |
| 2000. 2 (6기) | 30 | 22 | 73.3 |
| 계 | 146 | 108 | 74.0 |

Table 2. 호스피스 자원봉사 유경험자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구분 | 빈도 |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
|---------|-------|----|------|---------------|
| 성별 | 남자 | 6 | 6.9 | 45.41 ± 10.34 |
| | 여자 | 81 | 93.1 | |
| 연령 | 10대 | 3 | 3.4 | 45.41 ± 10.34 |
| | 20대 | 3 | 3.5 | |
| | 30대 | 14 | 16.1 | |
| | 40대 | 38 | 43.0 | |
| | 50대 | 23 | 26.4 | |
| | 60대이상 | 6 | 6.9 | |
| 직업 | 유 | 20 | 23.0 | 45.41 ± 10.34 |
| | 무 | 67 | 77.7 | |
| 현재 봉사활동 | 한다 | 64 | 73.6 | 45.41 ± 10.34 |
| | 안한다 | 23 | 26.4 | |

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93.1%가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연령의 범위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였고, 평균연령은 45.4세 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유경험자중 교육이수후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64명으로 73.6%를 차지하였다.

Table 3.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받은 환자의 특성

| 특성 | 구분 | 실수 |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
|-----------------|--------------------|-------|------|------------------|
| 성별 | 남자 | 98 | 44.1 | 50.97 ± 21.78 |
| | 여자 | 124 | 55.9 | |
| 연령 | 10세미만 | 24 | 11.0 | 50.97 ± 21.78 |
| | 10대 | 10 | 4.6 | |
| | 20대 | 1 | 0.5 | |
| | 30대 | 4 | 1.8 | |
| | 40대 | 50 | 22.9 | |
| | 50대 | 29 | 13.3 | |
| | 60대 | 59 | 27.1 | |
| | 70대 | 24 | 11.0 | |
| 진단명 | 위암 | 29 | 13.1 | 49.37(일) ± 68.80 |
| | 대장암 | 20 | 9.0 | |
| | 간암 | 20 | 9.1 | |
| | 유방암 | 8 | 3.6 | |
| | 췌장암 | 4 | 1.8 | |
| | 뇌출혈, 뇌졸중 | 19 | 8.6 | |
| | 마비 | 23 | 10.4 | |
| | 육창 | 5 | 2.3 | |
| | 폐암 | 30 | 13.6 | |
| | 기타 | 63 | 28.5 | |
| | 돌봄기간/ 환자1인당 | 1달 이내 | | |
| 1~2달미만 | | | | |
| 2~3달미만 | | | | |
| 3~4달미만 | | | | |
| 4~5달미만 | | | | |
| 6 이상 | | | | |
| 방문회수/ 환자 1인당 | 10회미만 | | | 10.32 ± 16.06 |
| | 10~20회 미만 | | | |
| | 20~30회 미만 30회이상 | | | |

3)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받은 환자의 일반적 특성

8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준 말기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5.9%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자원봉사를 받은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0.1세였다. 그들이 진단받은 질병명은 대부분 암이었으며, 폐암환자가 13.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환자 1인당 방문한 회수는 평균 10회정도 였으며, 호스피스 돌봄을 받은 기간은 평균 49.4일이였다.

2. 설문조사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석 결과

2차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35명에게 설문지를 중 불충분한 자료 5부를 제외한 30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크게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의 4영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1) 신체적 돌봄

신체적 돌봄의 영역 총 27항목을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0.99점을 나타냈다. 각 항목중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고 있는 활동영역은 '마사지나 지압해주기'(평균=2.4점)와 '식사 도와주기'(평균=2.4점)였으며, '관장하기' 항목은 한명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관으로 식사주기(평균=0.3점)', '체온, 맥박, 호흡재기(평균=0.6점)', '혈압재기(평균=0.7점)' 등과 같이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항목이었다(Table 4).

2) 정서적 돌봄

정서적 돌봄의 영역 총 13항목을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1.49점을 나타냈다. 각 항목중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고 있는 활동영역은 '용기나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주기(평균=3.1점)였으며, 다음은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주기(평균=2.5점)였다. 가장 점

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편지쓰는 것 도와주기(평균=0.2점)' 항목이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종이접기나 그림 그리기 함께 하기(평균=0.67점)', '만나기 원하는 사람 만나도록 도와주기(평균=0.77점)', '임종시 함께 있어주기(평균=0.83점)였다

Table 4.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돌봄 활동(n=30)

| 항 목 | 평균± 표준편차 |
|-----------------------------------|-------------|
| 1. 약복용을 도와주었다. | 1.57±1.46 |
| 2. 마사지나 지압을 해 주었다. | 2.40±1.35 |
| 3. 뜨거운 찜질이나 얼음 찜질을 해주었다. | 0.83±1.11 |
| 4. 딱딱하게 굳은 변을 제거해주었다. | 0.23±0.62 |
| 5. 관장을 해주었다. | 0.00±0.00 |
| 6. 설사시에 엉덩이 부위를 닦아주고 말려주었다. | 1.07±1.20 |
| 7. 변기를 대주어 대·소변을 받아내었다. | 1.07±1.17 |
| 8. 소변 양을 재고, 소변 주머니나 소변 병을 비워주었다. | 1.53±1.25 |
| 9. 토할 때 음식물이 목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 0.70±1.02 |
| 10. 불면증 환자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0.73±1.20 |
| 11. 목욕을 시켜주었다. | 0.67±0.92 |
| 12. 머리를 감겨주었다. | 1.00±1.02 |
| 13. 여성의 회음부(밑)을 닦아주었다. | 0.80±1.24 |
| 14. 욕창부위를 관찰하고 소독을 해주었다. | 1.30±1.20 |
| 15.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 1.13±1.25 |
| 16. 휠체어를 태워주었다. | 1.07±1.20 |
| 17. 관절운동을 시켜주었다. | 1.63±1.35 |
| 18. 체위변경을 시켜주었다. | 1.83±1.51 |
| 19.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 2.40±1.30 |
| 20. 관으로 주는 식사를 주었다. | 0.30±0.84 |
| 21.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 1.80±1.49 |
| 22. 가래를 빼 주었다. | 1.20±1.29 |
| 23. 체온, 맥박, 호흡을 재어 주었다. | 0.60±1.00 |
| 24. 혈압을 재어 주었다. | 0.73±1.14 |
| 25. 혈관 주사약이 잘 들어가는지를 관찰하였다. | 1.67±1.54 |
| 26. 입안을 청결히 해 주었다. | 1.47±1.46 |
| 27. 열 떨어 뜨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 1.06±1.17 |
| 총평균 | |

Table 5. 자원봉사자의 정서적 돌봄 활동(n=30)

| 항 목 | 평균± 표준편차 |
|---|-----------|
| 1. 환자의 걱정을 들어주었다. | 2.33±1.35 |
| 2. 감정(분노, 슬픔, 불안)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 2.40±1.38 |
| 3. 용기나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주었다. | 3.10±1.09 |
| 4. 힘들어 할 때 방문하여 같이 있어 주었다. | 2.33±1.37 |
| 5. 종이접기나 그림 그리기를 함께 하였다. | 0.67±1.09 |
| 6. 입종시에 함께 있어 주었다. | 0.83±1.23 |
| 7. 장례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 1.27±1.41 |
| 8. 가족이 휴식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 2.10±1.37 |
| 9. 가족이 임종과정과 상실, 슬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1.63±1.47 |
| 10.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 2.53±1.53 |
| 11. 환자가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0.77±1.25 |
| 12. 전화를 받아주었다. | 1.30±1.41 |
| 13. 편지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 | 0.20±0.61 |

총평균

(Table 5).

3) 사회적 돌봄

사회적 돌봄의 영역 총 11항목을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0.66점을 나타냈다. 각 항목중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활동영역은 '사망후 사별가족 만나주기'(평균=1.40점)였으며, 다음은 '물질적 도움제공'(평균=1.07점), '집안일 돕기'(평균=1.03점) 순이었다. 또한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6.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돌봄 활동(n=30)

목은 '지역사회 자원 소개하기(평균=0.53점)', '취미나 사회생활 하도록 돕기(평균=0.53점)', '주치의 대신 만나주기(평균=0.53점) 였다(Table 6).

4) 영적 돌봄

영적 돌봄의 영역 총 13항목을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1.97점을 나타냈다. 각 항목중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활동영역은 '환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평균=3.37점)였으며, 다음은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기'(평균=3.23점),

Table 6.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돌봄 활동(n=30)

| 항 목 | 평균± 표준편차 |
|-------------------------------------|-----------|
| 1. 의료비나 기타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하였다. | 0.87±1.14 |
| 2. 어린 자녀를 돌보아 주었다. | 0.57±1.14 |
| 3. 사망 후 사별가족을 만나주었다. | 1.40±1.33 |
| 4.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을 소개해 주었다. | 0.53±0.89 |
| 5. 외출 시에 함께 동반해 주었다. | 0.73±1.05 |
| 6. 외출 시에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 0.47±0.94 |
| 7. 취미생활이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0.53±0.94 |
| 8. 집안 일(세탁, 청소, 식품구입, 요리 등)을 도와주었다. | 1.03±1.25 |
| 9. 물질적(현금 또는 물건) 도움을 제공하였다. | 1.07±1.17 |
| 10.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주었다. | 0.57±1.17 |
| 11. 주치 의사를 대신 만나 주었다. | 0.53±1.07 |

총평균

'성경읽어주기'(평균=3.03점) 순이었다. 또한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예배참석하는 것을 도와주기(평균=1.03점)', '종교서적이나 테이프 구입돕기(평균=1.07점)', '종교서적이나 테이프 선물하기(평균=1.17점) 였다 (Table 7)

고 찰

과거와는 달리 점차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호스피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무한대의 인적 잠재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야만 필요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봉사정신의 실제적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내용과 방법이 보완되고 수정되어 한다고 본다.

W시에 소재한 일 종교단체에서 1997년부터 시작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원주 기독병원의 협력하에 시작되었으며, 시작 당시에는 W시 호스피스 개념 및 철학 등이 잘 알려져

Table 7. 자원봉사자의 영적 활동 분석(n=30)

| 항 목 | 평균± 표준편차 |
|-----------------------------|-----------|
| 1.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 1.67±1.47 |
| 2.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었다. | 1.27±1.34 |
| 3.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 | 3.23±1.10 |
| 4.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 1.03±1.32 |
| 5. 종교서적이나 테이프 등의 구입을 도와주었다. | 1.07±1.43 |
| 6. 종교서적이나 테이프 등을 선물하였다. | 1.17±1.46 |
| 7. 환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 3.37±1.19 |
| 8.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었다. | 1.87±1.68 |
| 9.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었다. | 2.07±1.57 |
| 10.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었다. | 2.97±1.33 |
| 11. 성경을 읽어주었다. | 3.03±1.37 |
| 12. 찬송가나 설교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 2.10±1.63 |
| 13. 가족들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 2.67±1.42 |

총평균

있지 않아 교육 참여율이 무척 저조했으나, 1998년 후 반기부터는 30여명으로 약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호스피스 활동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W시의 인구가 260,000여명에 불과한 중소도시라는 입지 조건도 있겠으나, 비슷한 인구 규모의 C시에서는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참여자가 100~200여명으로 교육장소가 좁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임을 볼 때 이는 C시에서 10년이상 호스피스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해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반대중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호스피스의 이용율을 높이고 자원봉사자를 늘리며 호스피스에 대한 기부금 확보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9]. 따라서 본 지역(W시)에서도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홍보와 아울러 조직적인 호스피스 사업의 전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다고 모든 사람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결단한 등록자들도 막상 호스피스 대상자들을 돌보는 활동에 전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비율은 더욱 저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샘플 호스피스의 경우 약 2,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지난 6년 사이에 등록되었지만, 20% 정도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료자의 평균 74%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결단하여 등록하였고, 등록자의 80.6% (87명)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활동중인 봉사자는 35명으로 등록자의 32.4%에 해당되어 샘플 호스피스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탈락율이 높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미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은 여성이 93.1% 차지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11~13]에서의 94.4%, 99.4%, 93.9%와 비슷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는 사회 활동이 많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적은 여성들이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들의 봉사활동은 열성적이었고 대상자들에게는 꼭 필요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도 40~50대가 69.4%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도 다른 연구결과[11~13]와 유사한 것으로 이는 가사 활동으로부터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여성 대상자들이 전업주부인 것이 아니라 23%는 어떤 형태이든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봉사활동 시간과 직업 시간을 조정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기의 적은 시간을 조정하여 봉사할 때 더욱 귀한 보람

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돌봄을 받았던 환자들은 평균 49.4일 동안에 약 10회의 방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적은 회수의 방문만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돌봄을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수행한 활동내역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신체적 돌봄이나 사회적 돌봄보다 정서적 돌봄과 영적돌봄이 더 활발했던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족의 보조 역할, 가족을 대신하여 환자수발, 집안 일 보조, 환자/가족의 친구 역할, 환자의 정보를 호스피스팀에 전달, 호스피스 사업을 위한 간접 활동 등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고유업무로 나타난 다른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였다[14, 15].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항목을 살펴보면 신체적 돌봄영역에서는 환자의 안위를 위한 방법과 식사보조술, 사회적 돌봄영역에서는 사망 후 사별가족 관리 교육이, 정서적 돌봄영역에서는 용기나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주기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적극적인 경청법 등과 같은 의사소통술, 영적 돌봄영역에서는 환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와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영적 상담을 위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활동내용 이외에도 본 연구대상 지역인 W시는 아직 호스피스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도록 주선하였고, 연고지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보호자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복지 시설에 연결시켜 주거나 후원자들을 결연시켜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예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 W시의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교역자, 간호사, 미용사, 대학생 등이 있어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질적인 돌봄을 줄 수 있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W시의 호스피스 사업이 향후 보다 튼튼한 발전을 위해 보다 활동가능한 자원봉사자 교육과 제도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목 적 :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받은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 법 : 1차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원주의 C.C.C에서 교육수료 후 자원봉사 유경험자의 기록지 총 64개 전수를 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도구를 직접배부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결 과 :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은 93.1%가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45세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이수후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35명으로 32.4%를 차지하였다.

2) 자원봉사를 받은 환자들의 특성은 평균연령이 50.1세였으며, 질병명은 대부분 암으로 그중 폐암환자가 13.6%로 가장 많았다.

3) 자원봉사자들의 환자 1인당 방문한 회수는 평균 10회정도 였으며, 방문기간은 평균 49.4일 이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적활동(4점 만점 중 1.97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정서적 돌봄(4점 만점 중 1.49점)이었다.

결 론 : 본 연구결과는 W시의 호스피스 사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가능한 자원봉사자 교육과 제도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통계청. 1999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1999.
2. 성기순. 호스피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임종환자의 가족의 실태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3. 박후남. 죽음과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최신의학. 1994;37:105-114.
4.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 1998.
5. 노유자. 말기환자와 호스피스 간호. 간호학탐구. 2000;1:11- 20.
6.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용진선. 일부 지역주민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와 태도 및 간호 요구 조사.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지 1999;2:23-35.
7. 황나미, 노인철. 말기환자 관리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 방안. 한국사회보건연구원, 1995.
8. 목혜원. 호스피스의 역사와 개념. 세브란스 호스피스교육자료집. 1999:1-7.
9. 홍영선. 호스피스의 현재와 미래-의사의 관점에서. 간호학탐구. 1999;8:32-43.
10. 원주희. 호스피스의 현재와 미래-목회자의 관점에서. 간호학탐구 1999;8:44-60.
11. 이정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2. 이원희, 이영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지 1999;2:101-108.
13. 효손재가노인복지 상담소. 유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 사례집. 서울:효손재가 노인복지상담소. 1998.
14. 최화숙.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호스피스 인력에 관한 연구. 간호학탐구 1999;8:91-115.
15. 김수지, 오송자, 최화숙. 호스피스 사랑의 돌봄. 서울:수문사. 1999.